

자료제공: 2026. 4. 21.(화)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4월 21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

동북권사업과장

진명국

02-2133-8275

사진없음 ☐ 사진있음 ☒ 쪽수: 8쪽

기반조성팀장

김철희

02-2133-8286

창동, 365일 K-POP 가득 글로벌문화중심지로... 강북 경제 살리고 삶의 질 높인다

- 내년 상반기 개관 2.8만명 규모 K-POP 성지 '서울아레나' 중심 'K-엔터타운, 창동' 조성
- 서울아레나 중심 거리 곳곳 공연·이벤트... 인근 시설 연계 K-컬처 축제의 장으로 조성
- K-컬처 특화 상업시설 확대로 방문객 지역 소비 활성화, 문화엔터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
- 호텔 700실 확충, 창동역~중랑천 문화예술거리 등 지역자체가 투어코스, 체류 인프라 다양화
- '27년 창동 문화·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... 용적률 완화, 자금융자 등 민간 투자 활성화
- 오 시장, "창동, 외국인관광객 3천만명 시대 여는 중심공간... 강북주민 삶의 질 높일 것"

□ 도봉구 창동 일대가 365일 K-POP이 흐르는 글로벌 문화중심지이자 문화·엔터테인먼트 산업집적지로 거듭난다.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2만 8만명 규모 K-POP 성지 '서울아레나'를 중심으로 주변 문화예술시설과 특화 상업시설 등을 연계해 서울관광 3천만 시대를 견인할 'K-엔터타운, 창동'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.

□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'새로운 경제 엔진'이 될 「글로벌 문화 중심지 K-엔터타운, 창동」 조성계획을 21일(화) 발표했다.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, 엔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창동을 동북권 경제활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핵심이다.

□ 이번에 발표한 「K-엔터타운, 창동」은 ①365일 공연이 펼쳐지는 도시
②공연이 산업과 일자리로 확장되는 도시 ③공연이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는
도시로 조성된다.

□ ‘K-엔터타운, 창동’ 중심에는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‘서울아레나’가 있다.
시는 K-POP 공연이 티켓 매출을 넘어 지역 숙박과 교통, 외식, 쇼핑 등
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조 단위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핵심동력으
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, 2009년부터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조성에
착수했으며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됐다.

<서울아레나 중심 거리 곳곳 공연·이벤트… 인근 시설 연계 K 걸쳐 축제의 장으로 조성>

□ 첫째, 앞으로 창동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연중 글로벌 공연 열기와 전
시 등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 ‘라이브 스테이지(Live Stage)’ 도시로 거듭
난다. 창동 지역 자체를 공연과 이벤트 메카로 만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이
끊이지 않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.

□ 먼저, 연 100회 이상 3만 명이 찾는 공연을 서울아레나에서 개최, 도시
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동역 광장과 고가 하부 등 곳곳에서는 거리공연
과 버스킹이 상시 이어진다.

□ 특히 서울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외부에서도 실시간 공유하고 함
께 즐길 수 있는 생중계 시스템 ‘커넥티드 라이브’를 도입해 창동 전역
을 하나의 공연장으로 만들 계획이다.

○ 커넥티드 라이브는 서울아레나의 실시간 공연을 다양한 지역거점으로 송출
해 여러 공간에서 동일한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.

- 또 DDP와 ‘동대문 K-POP 거리’ 등 강북지역 문화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개발해 K-엔터타운의 활력이 동북권 전체로 확산되도록 한다. 서울아레나 개관 시기에 맞춰 서울대표 계절축제 ‘스프링페스티벌’과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여 K-POP 성지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린다.
- 인근 서울시립사진미술관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,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에서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서울아레나는 물론 창동 곳곳을 찾는 글로벌 방문객들이 K-컬처를 한층 더 폭넓게 즐기도록 할 예정이다.
- 이 외에도 시는 서울아레나 단지 내에 복합문화컨벤션을 건립해 뮤직어워드, 앨범 발표회, 팬미팅 등 공연과 연계한 각종 이벤트도 개최한다.

<K컬처 특화 상업시설 확대로 방문객 지역 소비 활성화, 문화엔터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>

- 둘째,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를 이끄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‘라이브 인더스트리(Live Industry)’ 도시를 조성한다. K-엔터타운 내 K-컬처 특화 상업시설을 마련해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린다. 또 문화·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.
- 우선 창동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공연 전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창동민자역사와 협업하여 굿즈를 비롯해 K-패션·K-뷰티 등 쇼핑·소비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. 농협하나로마트 부지에는 K-푸드 특화마켓이 생긴다.

- 창동역 인근에 있는 저이용 부지와 노후 기성 상업지 등에는 용적을 최대 1,300%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상업, 관광숙박, 기업 업무공간을 도입한다.
- 문화·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유치와 집중적인 육성도 펼친다. 관련 산업이 융합·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폭발적 시너지 창출이 목표다.
- 서울아레나 내 조성되는 대중음악지원시설은 공공이 직접 운영, 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의 음악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. 창업공간인 '창동 아우르네'와 문화산업단지 '씨드큐브 창동'에도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성장기반 마련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.
-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에도 문화 관련 핵심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도입을 검토하여 문화산업 발전 앵커역할을 수행한다.
- 이외에도 서울아레나와 인접한 중랑천 건너 상계 지역에 조성 중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(S-DBC)에도 문화산업 기업을 유치한다. 산업단지 개발 시 중랑천 변 복합용지에 바이오산업 외에도 공연·엔터기업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창동과 상계가 연계한 강북지도 재구성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.
- 아울러 서울아레나 민간운영사, 기획사, 지역상인 등 민간이 주도해 지역 공연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견인,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탄탄한 체계도 구축한다. 먼저, 민간 주도 지역활성화 협의체를 통해 로컬브랜드를 발굴하고 다양한 협업으로 효율성도 높인다.

- 서울아레나 운영사는 창동 일대 거점시설 등과 연계한 인플루언서, 공연관계자, 언론 등 대상 팸투어를 추진하고, 엔터테인먼트 기업, 공연기획사와 협력해 지역특화 문화·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.

<호텔 700실 확충, 창동역~중랑천 문화예술거리 등 지역자체가 투어코스, 체류 인프라 다양화>

- 셋째, 공연 관람객이 숙박, 여가, 미식 등 여행의 모든 일정을 ‘K-엔터타운, 창동’에서 마음껏 즐기고 또 오래 머물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한 ‘라이브 시티(Live City)’를 실현한다.
- 창동역 복합환승센터, NH복합상업시설,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(S-DBC) 지원시설 용지 개발시 숙박시설 700실 확충해 동북권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 틈새를 메우고 인근 주택을 활용한 도시민박업 활성화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준다.
- 실제 K-POP 공연 관람객 중 외국인 비중은 30~40%, 체류 활동 비중 90% 이상으로 관람이 체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. 이에 시는 ‘체류형 관광 기반’을 구축하고 관람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.
- 또 이동이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도록 창동역~서울아레나~중랑천을 잇는 ‘문화예술 테마거리’를 비롯한 다양한 투어 루트를 개발하고,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전면에는 K-POP 광장을 조성해 도시의 이미지를 높인다. 창동역 남측에 조성된 골목상권은 ‘K푸드 특화거리’로 변신, 공연·먹거리·휴식이 어우러진 관광코스를 완성한다.
- 중랑천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(S-DBC) 복합용지에는 식음·쇼핑·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수변 명소를 조성해 지역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수변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.

- 서울 동북권의 자랑 중랑천과 도봉산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. 먼저 중랑천 수변공간에 전망데크, 분수,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. 또 도봉산 등산·캠핑 등 다채로운 K-여가를 해외 방문객들도 즐기도록 도봉산 일대에 숙박시설과 캠핑장을 조성,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.
- 서울 동북권의 자랑 중랑천과 도봉산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. 먼저 중랑천에 서울물빛나루를 조성하여, 전망데크, 교량분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. 또 도봉산 등산·캠핑 등 다채로운 K-여가를 해외 방문객들도 즐기도록 도봉산 일대에 숙박시설과 캠핑장을 조성,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.
- 창동역은 ‘서울아레나역’ 또는 ‘K-엔터타운역’을 병기해 관광객 접근성과 지역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.

<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… 용적률 완화, 자금 융자 등 민간 투자 활성화>

- 한편 서울시는 ‘K-엔터타운, 창동’의 위상과 문화산업·지역경제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동 일대를 ‘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’로 지정한다고 밝혔다. 2027년 지정이 목표다.
- 자금융자, 세제지원,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, 지역특화발전특구도 지정하여 도로 등 공공 공간의 점용과 옥외광고, 간판 규제는 완화해 지역 내 상업 및 소비활동을 늘린다. 공연과 문화행사, 야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또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중랑천 연결교량 등 지역 내 필수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중랑천 수변공간 정비 등 문화·여가시설도 조속히 추진한다.

□ ‘K-엔터타운, 창동’ 조성에는 총 2조 7,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. 지난해까지 민간 및 공공자본이 총 2조가 투입됐고, 올해부터 총 7천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.

○ '25년까지 서울아레나, 씨드큐브 창동 등 민간자본 약 1조 7천억 원과 함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공공자본 약 3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, 올해부터는 중랑천 정비 등 공공 2천억원,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민간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.

□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창동을 비롯한 상계 일대는 더 이상 '외곽'이 아닌 서울 동북권의 문화예술 거점이자, 외국인관광객 3천만명 시대를 여는 중심공간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탄탄한 경제코어가 될 것”이라며 “K-엔터타운, 창동을 비롯한 강북의 성장과 변화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물론 강북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질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이어 “서울시는 강북의 잠재력이 경쟁력이 되고 변화의 가능성이 실질적인 격차 해소로 이어질 때까지 강력한 지원으로 다시, 강북전성시대를 실현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붙임

조감도

